

“고려 교장, 10세기 동북아 지식 총람”

고려대장경 ‘교장 학술세미나’서 한 목소리

김성수 교수 “불교저술 일목요연 분류”

남권희 교수 “중국·일본 전해져 간행돼”

최종남 교수·라정숙 박사 “경전 연구 도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 교장학술세미나에서는 고려대장경의 교장(敎藏)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김성수 청주대 교수는 ‘교장총록의 체계성과 국제성’ 발표를 통해 “이전 스님은 초조대장경이 완성된 1087년 훨씬 이전인 1073년(19세) 때부터 장소의 중요성을 깨닫고 20년 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거란·일본 등 동북아 전체 국가에서 불교연구저술을 수집했다”며 “고려교장은 1000년 전 동북아 국제사회의 지식총람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교수는 이어 “이전 스님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면서 자신의 교학관이라 할 수 있는 원용의 문, 종돈의 지, 시교의 중, 소승의 설 등 분류체계를 나누었다”며 “이는 당대 불교지식을 분류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불교를 일목요연하게 알리기 위한 시도였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진행하는 교장의 디지털화 사업은 후대에 당시 지식정보를 전하기 위한 필수과정”이

라며 “우리말 국역 사업 및 영영 사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학 분야 전문가인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간행본 교장의 서지분석’에서 “교장은 이전 스님이 중국을 다녀온 후 간행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고 이에 따라 1092년부터 1102년 사이 이뤄졌다”며 “당시 사업에는 궁중과 사찰의 글 잘 쓰는 사람들과 승려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저본의 일부는 송나라에서 파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다”며 “이후 이전 스님의 교장이 12-13세기 중국과 일본으로 전해져 번각이나 간행, 필사의 형태로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남 교수는 “교장의 대상문헌 중 추가된 문장과 이체자 등이 발견되는 만큼 서지적 분석과 원문대조 작업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는 ‘광교원본 <성유식론술기> 권6의 판본대조연구’에서 “당시 광교원에서 판각된 <술기> 권 6을 분석해 보면 광교원본은 어느 대장경, 혹은 판본을 저본으로 교감 및 판각된 것이



김성수 교수

남권희 교수

최종남 교수

라정숙 박사

아님이 드러난다”며 “광교원본은 교감자인 혜덕 왕사의 발원과 지도에 의해 판각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판각 과정에서 교감자는 일부 내용 중 문장 간재과정과 원할한 문맥 흐름을 위해 단어를 추가하기도 하지만 혜덕 왕사는 의도적으로 단어와 문장을 추가했으며 이후 오기, 오류 및 오각으로 규기가 찬술한 <술기>의 원의미를 잃게 했다”고 분석했다.

라정숙 고려대장경연구소 박사는 ‘신출교장 자료연구’ 발표에서 <신편제종교장총록>에 포함된 <원각 예참약본>에 주목했다.

라정숙 박사는 “<예참약본>은 끊임없는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시키고 계율을 잘 지키 불도를 성취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예불용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각종 제불보살의 칭명이 하나씩 들어가 당시 칭명염불 수행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 대장경 꽃 <고려교장>은?

제종교장은 대각국사 이전 스님이 대장경에 들어간 경우론에 대한 각 종파의 장소(章疏)들을 결집해 간행한 불교저술서 문헌의 총서다.

이전 스님은 초조대장경 결집이 일단락 된 후 장소 결집을 서원하고 송·요·일본 등 주변국으로부터 자료를 모아 정리했다.

하지만 1232년 제2차 몽골 침입때 교장 목판이 소실됐으며 간행본 일부만 전해졌다. 교장총록에 의하면 제종교장은 총 1,010종 4,886권에 달한다. 현재 자료조사에 의하면 108종 950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티벳어역 본 등 참조해 경전 보충해야”

장규언 금강대 HK연구교수, 불교학연구회 봄 논문 발표회서

장규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는 불교학연구회가 3월 30일 개최한 봄논문 발표회에서 <해심밀경소>의 티벳어역의 가치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심밀경(解深密經)>은 사람의 심층심리를 체계적으로 꿰뚫는 경전인 동시에 논점으로 설한 경전이다. 유식사상(唯識思想)의 근본경전으로 <해심밀경>에 대한 다양한 주석서 중 현존하는 것이 신라 원죽 스님이 당나라에서 지은 <해심밀경소>다.

장 교수는 이날 9세기 초 최후(Chos grub, 法成)에 의해 번역된 원죽 스님의 <해심밀경소>의 티벳어역(이하 SNST)가 인도 및 티벳불교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읽히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해심밀경소>의 현존 한문본은 많은 부분에서 오자, 탈자 등 텍스트 상 문제가 존재한다. 티벳어역 역시 불안정하기 마찬가지이지만 비교적 한문 원

전에 충실한 지역으로 9세기 초만 전래된 한문 사본의 모습이기엔 상호대조작업을 거치면 온전한 한문 교정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SNST에 의거해 통째로 결락된 <해심밀경소>제10권 전체와 제8권의 첫머리의 품명(品名) 주석의 한문 복원이 진행됐으며 근래에는 기타 부분의 교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끝으로 “향후 SNST를 비롯한 티벳어역 등을 활용해 대장경 등의 교정과 보충 등의 사상연구가 본격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해륜 고려대 철학과 박사는 ‘홍주종의 작용즉성설 비판과 무심’을 통해 황벽 회은 선사(전심법요)를 통해 임제종이 홍주종의 역사를 재편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지로 공식화 시킨 과정을 살폈다.

노덕현 기자

“소통하는 불교학 이끌 터”

조은수 신임 불교학연구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제8대 회장에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조은수 교수는 “불교학연구회는 한국 불교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회 중 하나로서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며 연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 교수는 “소통하는 불교학”을 목표로 하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바의 새로운 불교학 연구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각종 스터디 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불교학계의 현황과 정보를 모으고 알리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불교학연구회는 이에 따라 3월 30일 봄 논문발표회 외에도 5월 25일 춘계학술대회, 여름워크숍, 9월 8일 가을논문발표회, 11월 10일 추계학술대회 등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불교학과 융합학문의 관련 등 최근 불교학계의 트렌드



노덕현 기자

를 반영한 학술 진흥행사와 좌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불교학연구>도 연간 총 4회 출간한다.

조 교수는 “지난 2년간 박경준 회장이 많은 애를 써 재정이 더욱 튼실해진 것은 물론 여덟 차례나 되는 학술 행사를 내실 있게 잘 치렀다. 신진학자 발굴을 비롯해 학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소개하도록 하겠다”며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학술 · 문화재소식

“화순 운주사 석불 풍화현상 심각”

조선대 연구팀 조사…보존처리 시급

화순 운주사(雲住寺) 석불이 바람에 의해 심각한 풍화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승 조선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3월 28일 한국암반공학회 학술 발표회에서 ‘화순 운주사 석조문화재의 풍화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운주사 석불의 풍화현상을 살폈다.

강 교수팀은 화순 운주사의 불상 70여 기 중 1기를 대상으로 저주과 결합 탐지기를 활용해 바람에 의한 풍화현상을 연구했다.

석불의 왼쪽, 오른쪽을 120차례씩 나눠 측정해 결과 석불 왼쪽 부분의 72%가 풍화현상이 진행됨이 드러났다.

강 교수는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풍화가 진행되고 이어 균열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운주사 석불에 대한 보존처리가 시



풍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화순 운주사 석불.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 운주사는 석불과 석탑이 각각 1000기씩 있었던 우리나라 유일한 사찰로 유명하다.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운주사가 천불산에 있으며 절 좌우 산에 석불 석탑이 각 1000천기씩 있고 두 석불이 서로 등을 대고 앉아있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석탑 21기, 석불 90여 기만 남아있다. 노덕현 기자

제15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5월 24일까지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제15회 진각논문대상을 5월 24일까지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등상불과 무상불’ ‘밀교 부법의 역사와 유행’ 로 이 밖의 자유주제로도 응모가능하다.

진각논문대상은 진각종 교육원이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의 발전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 학력과 전

공 제한은 없다. 진각종 교학 2편과 불교 일반 2편, 밀교일반 2편 등 분야별 6편을 채택하며 당선된 논문 중 최우수 1편에 500만원, 선정 5편에 25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6월 28일 발표되며 12월 12일 발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당선논문은 2014년 6월 발간 예정인 <회당학보> 제19집에 게재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연구소, ‘한국불교사연구’ 제2호 펴내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한국불교사연구’ 제2호를 펴냈다.

‘분황 원효 연구의 몇 가지 과제들’을 기획논문으로 다룬 이번 호에는 △분황 원효 저술의 서지학적 검토(고영섭) △교체설·체용론과 원효의 언어관(이도흠) △원효 일심의 정의와 의미(김원명) △하

정사상을 둘러싼 쟁점 검토(박태원) 등이 실려 있다.

또 특집논문으로는 △광해군의 대외정책 재론(한명기) △광해군의 불교인식(고영섭) △임진왜란 의승군의 봉기와 전란의 충격(황인규) 등이 게재돼 있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Buddhism and Culture’ 17호 발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이 한국 불교 세계화와 국제 포교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영문잡지 ‘Buddhism and Culture’ 2013년 제1호(통권 17호)가 발간했다.

이번 ‘Buddhism and Culture’에서는 한국 불교사상과 문화적 가치와 사회병리현상을 심리치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Experiencing Korean Buddhism and Culture(찾아가는 한국 불교, 문화),

Encountering Buddhist Ecology and Practice(만나보는 불교생태 & 수행), Empathetic Buddhism and Beyond(공감하는 불교, 그 너머의 3개 섹션으로 구분됐다.

반년간지 ‘Buddhism and Culture’는 해외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지역도서관, 불교 관련 학자를 비롯해 해외 사찰, 불교 수련센터 등에 배포한다. (02)719-2606 신종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뚱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기기 개인용온열복대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서
 *오심, 구역,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